

사회

학원 야간교습 시간 겨우 10분 단축... 전남도의회 조례안 가결

반발하던 도교육청 슬그머니 '타협'

“헌법소원도 불사” 외치더니 돌연 ‘공포’ 선회 도의회와 밀월관계 형성 후 개정안 마련 복안

전남도의회가 학원교습 시간을 자정에서 불과 10분 단축하는 수정 조례안을 가결한 데 반발해 의회에 재의(再議)를 요청키로 했던 도교육청이 돌연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이같이 결정한 속내는 의회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의회와 '밀월'관계 형성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말 고교생 대상 학원교습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로 단축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을 밤 11시50분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3

일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애초 이 수정안에 반발해 조례안 공포를 미룬 채 헌법소원의(再議)를 요청키로 했던 도교육청이 돌연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전남도의회의 조례안은 기존 교습시간(밤 12시)을 불과 10분 단축한 것이어서 사실상 학생들의 수면시간 보장 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조례개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조례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한 데는 그동안 의회와 크고 작은 사안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해는 일단 조례안이 공포되면 재개정 작업을 거쳐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데다, 의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또 6100개에 달하는 전남지역 학원, 교습소 등의 집단 반발도 조례 개정작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학원운영자 98%가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시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밤 10시로 돌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의를 요청해도 현실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한계가 있는 데다 법령 위반이 아닌 경우 헌법소원을 내기 어려운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리베이트 '유죄' PMS는 '무죄'

리베이트 의사 7명 벌금형

광주지법, PMS 연구비 받은 2명은 무죄 선고

법원이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 병원 의사 7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PMS(사관용 임상조사) 비용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은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병원 박모(40)씨 등 의사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3천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박씨 등이 수년간 이뤄진 관행을 답습한 점, 받은 돈을 의약품 등으로 쓴 점, 조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병원에 의약품이 납품될 때 제공되는 소위 '랜딩비'(납품사례비)와 PMS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2400만원~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PMS비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남대병원 정모(57)·또다른 정모(52)씨 등 의사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 등 의사 7명에 대한 PMS비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납품사례비나 강연료 등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PMS비는 정당한 계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7월 'PMS명목으로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의약품 납품 '리베이트'와 PMS비 등을 받은 혐의로 박씨 등 광주, 전남·북 대형병원 의사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선대병원 의사 문모(40)씨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강평길 전 여수해경서장 뇌물수수 혐의 긴급체포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평길(58) 전 여수해양경찰서장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조업금지구역에서의 조업 권의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광주일보 1월 12일 6면)로 강 전 서장을 긴급체포했다.

강 전 서장은 지난해 4월부터 경남 통영지역 멸치잡이 선단의 선주 10여 명으로부터 조업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2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서장은 또 지난해 여수해경 인사과정에서 승진을 대가로 경찰관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 여수해경과 통영시내 선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분석 등을 토대로 강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손찌غم 때문 헤어진 여자친구 또 폭행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아 온 30대가 경찰서행.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31·화순군 화순읍)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원룸 헤어진 여자친구(24)의 집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부상을 입히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주먹을 휘둘렀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평소 자신의 잦은 손찌غم으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연락이 닿지 않자 쫓아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여자친구가 나를 신고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농민 맞춘 사냥꾼 '오발탄'

나주 비닐하우스서 일하던 50대 女 부상

나주의 수렵 금지구역에서 사냥꾼이 쏜 공기총 탄환에 50대 여성이 얼굴을 빗겨 맞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나주경찰은 12일 수렵 금지구역에서 공기총을 쏘던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여성을 다치게 한 최모(48·나주시 금천면)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나주시 산포면 한 농가에서 비닐기를 잡기 위해 공기총을 쏘 30m 가량 떨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박모(여·55)씨의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혈액부족... 공무원들 헌혈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지하 1층 강당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계절적인 특성으로 겨울철 혈액 부족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진행된 헌혈에는 공무원과 주민 등 100명이 참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벽 귀가 여대생 성폭행

광주서부경찰, 강도강간혐의 3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새벽에 귀가하는 여대생을 성폭행한 조모(32·광주시 서구 풍암동)씨에 대해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6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고시원 건물 주차장에서 김모(여·

중 상하이 해역 5.3 지진

광주·전남 건물도 '흔들'

12일 오전 10시19분 중국 상하이 북동쪽 295km 해역(북위 33.17, 동경 123.63)에서 리히터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중국 상하이와 우리나라 제주도 중간의 지점으로, 광주·북포·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미약한 진동이 감지돼 시민들로부터 건물이 약간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양순기기자 yang@kwangju.co.kr

성매매 광고 전단지 인쇄업자 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

광주서부경찰은 12일 불법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인쇄해 공급한 송모(47·서울시 광진구)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성동구 자신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공·민]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 | | | | | | | |
|--|--|--|---|--|---|--|---|
|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8:00 (2개월 완성) |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시험,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특강/토요일 개강) |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09:00 - 14:00 (4주 완성) |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09:00-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 9급 야간반 강의시간: 19:00-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률 배출! | 명품 "강력단과"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시험,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15:30 - 18:30 (2개월 완성) | 합격 필수 소망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채점속도가 10배 강의시간: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특강/토요일 개강) |
|--|--|--|---|--|---|--|---|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접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